

광주 도심 최고속도 시속 50km로 낮춘다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간선도로 326km 속도 하향 주차가 이면도로 30km 이하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주요 도심 도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 326km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 하향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

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필요시 6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를 도입해 제1순환도로 내부 59.2km에 대해 속도 하향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 326km에 대한 설계작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h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광주 시 소통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바뀐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영국, 스웨덴 등에서 도심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76.4%, 보행사고 중 92%가 도심 내에서 집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2016년 정

책제안을 통해 도심 내 속도제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 결과, 부산 영도는 전체 사망사고 24.22%, 보행사고 사망자 37.5% 등이 감소했으며, 전국 68개 시범지역의 전체 사망자수는 63.6%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우려했던 교통정체도 평균 2분, 택시요금은 평균 106원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미미했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복지분야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회서비스 성과 평가 우수상 내년 정부 예산 배분 추가지원

광주시가 복지분야 정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정부 예산 배분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시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이다.

2019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 평가 추진과정은 상반기 진단보고서와

하반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도별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광주시는 성과평가 지표 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접목해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기준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형 복지건강국장(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와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치구 담당자와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시 8월 1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2020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 도시재생의 모든 것: 기획, 설계부터 디자인까지'라는 주제로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재생 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10일까지이며, 공모분야는 ▲사업 콘셉트 기획 ▲브랜드 디자인 ▲도시공간 설계 등 3가지이다.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수상은 설계 분야 대상 300만원, 기획·디자인분야 대상 각 100만원 등 약 20여 개 작품에 대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최원길 기자 cki@



의료장비 업체 현장 애로 청취
이용섭 광주시청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이 지난 8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의료용 X-ray 제조 전문기업 HDT를 방문해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오준호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 공모 하천·토질 방재전문가 30명

광주시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하천·수자원, 상하수도, 토질, 토목·건축 시공, 토목·건축 구조,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7개 분야다.

모집인원은 광주·전남권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방재 전문가 30명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방재 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10대 지원 보급

독서확대기·특수키보드 등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신체·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11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이다.

보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

인이다.

보급 품목은 91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소프트웨어(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38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7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소프트웨어(SW) 등 26종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실(613-2612)로 우편 또는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접수한다.

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보

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7일 시 홈페이지에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자에게는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리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에선 90여 종의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667곳 관리실태 감찰

광주시, 6월17일까지

광주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6월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찰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615곳과 노인 보호구역 52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25일자로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44억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감찰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실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등이다. 또 보행환경 저해요소인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계획 등도 확인한다.

감찰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주먹밥 '먹족 챌린지' UCC·사진 공모

광주시는 "광주대표음식인 광주주먹밥의 상품화·브랜드화를 위한 '광주주먹밥 먹족 챌린지' (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의달, 즐거운 먹족생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주먹밥으로 힐링하는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스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메시지를 함께 녹여낸 사용자 창작콘텐츠(UCC)와 사진을 공모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1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 올린 후 참가신청서를 이메일(jumeokbapucc@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단 게시한 자료는 시상 전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